

“종단 안팎 온도차…따뜻하고 친절한 불교 만들자”

■ 의제 선정 토론,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에 이어 전체토론과 대중공사에 서 논의될 주요 의제들을 선정하기 위한 모둠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집행위원장 일감스님의 사회로 이미 지 연상하기와 ‘감사 창’의 용기’ 등 단어를 보고 문장 완성하기를 통해 종단 100년 대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중공사 참가자들은 12~13명 정도 조를 나눠 총 10개 모둠으로 토론을 펼쳤다.

총무원장 스님도 주경·진화·종우·목종·진명·마가스님과 성태웅·손석춘 건국대 교수, 이채은 대불련 회장, 유지원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 등과 함께 6조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본격적으로 대중공사의 의제 선정을 위해 논의를 펼쳤다. 특히 청정승단을 위한 승승진작과 승가교육의 다변화, 승가공동체 회복, 불교에 대한 신뢰회복 등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불교의 모습과 수행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사찰 재정 투명화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으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로 “따뜻하고 친절 한 불교”를 제시했다. 조계종 부산 연합회 사무총장 목종스님도 “절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온 이들에게 조금만 안내하면 다음에 다시 절을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제가 사부대중
10개 모둠으로 토론
그 자체로 역사

승가 공동체 회복
사찰재정 투명화 등
‘시급한 과제’ 쏟아져

종회의원 주경스님은 “종단에서는 신도들과 스님들의 온도차, 종단 소임을 보는 스님들과 아닌 스님들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종단과 스님들이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해 왔지만 신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종단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



‘100인 대중공사’가 상징하듯 1월28일 첫 모임에서 나온 의견은 종단과 사회, 복지, 교육, 수행 분야 등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했다. 한 달에 한 번 1년 동안 다루기에 벅찬 주제도 많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출가와 재가가 선을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성태웅 교수는 “사홍서원을 매년 하지만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의 서원이 없다”며 “현실에서 각자 서원 갖기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서원을 갖는 운동 같은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른 모둠에서도 열린 토 식하고 출가와 재가가 선을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성태웅 교수는 “사홍서원을 매년 하지만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의 서원이 없다”며 “현실에서 각자 서원 갖기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서원을 갖는 운동 같은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으로 변했다”며 “종단이 중생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 에 대한 진정한 고민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은 “종단 혁신을 위해 스스로 혁신하고 있는지 되물 어보는 것을 주안점에 두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참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초심호계원장 정현스님

은 “스님과 재가불자를 만나 반갑고 개인적으로 좋은 교육이 됐다”면서 “앞으로 대중공사를 통해 종단의 희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하북동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불교 경전은 종류도 많고 어려운 내용이다. 초심자에 맞춘 휴대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경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 8대 의제를 선정 한 참가자들은 향후 대중공사 운영

“이해하기 쉬운
초심자용 경전 만들기
실천가능한 소재부터…”

“기대도 우려도 있다
대중공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

계획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대중공사 참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박순 불교 여성개발원장은 “이 자리가 앞으로 종단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 불자들의 참여도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학기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대중공사를 통해 신도들의 역할이

많이 확장되고 스님들이 재가자의 역할을 이해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은 “대중공사가 사부대중의 청구가 되어 한국불교와 조계종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종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이채은 대불련 회장은 “대중공사에 최연소 위원으로 대학생들을 대표해 참석하게 됐다. 많은 분들께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다. 대불련도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웅기 불시넷 운영위원장은 “우리 종단이 종단 안팎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등한 대중공사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사회에도 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은 “대중공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기도 하고 우려하기도 한다. 대중공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중공사마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동력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며 “희망과 원력을 갖고 진심된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듣는 대중공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공주=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이경민 수습기자 kylee@ibulgyo.com

“정화이후…하화중생 없다” 총무원장 스님 ‘진단’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모듬 토론에서 불교계가 명확한 수행자 상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불교가 사회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동안 역할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모듬 토론 내내 자리를 지키며 다른 위원들과 함께 평소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정화 이후 한국불교가 자리매김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사회를 위해 기여한 바가 없다. 학교 건립이나 민주화를 위해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자연

히 불교가 신뢰받을 수 없다”며 “상구보리만 있지 하화중생은 없다”고 종단 현실을 진단했다.

불교계가 수행자의 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스님은 “짧은 수행자들이 ‘최소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겠다’는 마음과 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배 스님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며 “(요즘 스님들은) 참선이나 포교 뭐 하나 묵숨 걸고 하는 일이 없다. 군인들이 명확하게 군인정신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스님들에게는 ‘중 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스님은 “이는 우리가 후배들에게 안 심어줬고, 우리 역시 선배들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

육 사업을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다가 죽어라’ 하는 원력을 스님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쇄신은 전기 스위치를 껐다가 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각도만 5도 틀자”며 “조급해하지 말고 욕을 먹어도 꾸준히 갈 수 밖에 없다. 자성과 쇄신, 대중공사의 결과는 10, 20년 뒤에 나타난다. 조그만 부분부터 생각을 바꿔가자. 100인 대중공사를 통해 각도만 틀자. 당장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자. 100인 대중공사가 꾸준히 지속되면 된다”고 당부했다.

공주=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6조별 모임(모듬)에서 나온 의제들을 일일이 체크하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출가자 고령화…‘위기요인’

국민소득과 신앙심 반비례
“기복위주 종교 도태” 전망

수도권·경상권 사찰 편중
‘통계로 본 종단 현실’ 주목

100인 대중공사 의제 선정을 위한 전체토론에서 ‘통계로 본 한국사회와 종단의 현실’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상봉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국장은 불교사회연구소와 OECD 발표 자료 등 통계를 활용해 종단의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상봉 국장은 수도권과 경상권

에 사찰 집중, 사설사암에 비해 공찰의 증가 부족, 출가자 감소 및 고령화 등을 통계 지표로 제시하며 한국불교의 위기 요인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현재 종단 사찰은 경상권이 41%, 수도권이 22%로 전체에서 6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인천이나 대전, 울산, 광주 등 광역시의 사찰 비중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년간 사설사암이 237곳 증가한 반면 공찰은 7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0년 동안 증가한 사찰에서 사설사암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달하는데 반해 공찰은 2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봉 국장은 “비

구·비구니 스님의 각각 24%, 17% 증가했으나 사미·사미니의 경우 각각 31%, 59% 감소했다. 연령 분포 역시 30~40대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50~60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사회 고령화 파급속도나 규모에 비해 빠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국장은 국민소득과 신앙심은 반비례 된다는 상관관계를 통해 “신앙과 기복위주의 종교는 도태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불자들이 불교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로 도덕성과 청렴성, 사회참여, 사찰재정 투명화, 대중적 수행법 등을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통계를 기초로 좋은 논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이경민 수습기자 kylee@ibulgyo.com

공 고

종헌 제32조 내지 제34조, 제50조, 선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직능직 2명) 및 재선거(비구니 1명)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능대표(행정분야 1명 / 복지분야 1명)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보궐 및 비구니 재선거 선거일
불기2559(2015)년 3월 12일(음 1월 22일) 목요일
※ 직능대표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입후보자 자격
직능대표 : 행정,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비 구 니 :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입후보자 등록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공동사항

- 입후보자 자격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서 선거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후보자 등록기간
불기2559(2015)년 2월 16일(월) ~ 18일(수) 오전 9시 ~ 오후 5시
※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경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2월 15일(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하여야 함
- 입후보자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제적등본 1부
(단,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에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 제적등본 일체를 추가 제출)
→ 신원조회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불기2559(2015)년 3월 9일(음 1월 19일) 월요일 오후2시
- 회의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

문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02-2011-1865)

